

계 열 문 항 1

<가>

미국과 중국은 경제 규모가 큰 만큼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국가다. 2014년 두 국가는 온실가스 배출 한도 설정, 더욱 깨끗한 에너지 연구, 에코-스마트 도시 계획, 수소불화탄소 사용의 단계적 축소 등에 대한 협력을 약속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하여 국제적 책임에 대응하고 있다.

두 국가가 주도하는 이러한 전략은 구체적으로, 전기자동차, 염수 농업, 탄소 포집(carbon capture)과 재사용, 태양열 발전, 자기부상열차, 도시 생태학, 배양육과 같은 새로운 기술 개발에 집중되어 있다. 예를 들어, ‘지구공학’이라 불리는 기술 중 ‘역배출 기술(NETs, Negative Emission Technologies)’은 공기 중 탄소 저감을 위한 탄소 포집과 저장 기술로 기후위기 대응 기술의 중요한 축이다. 또한 동물의 사육 없이 배양육을 생산하는 기술만으로도 큰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96% 낮추고, 에너지 사용을 45% 절감하며, 토지 사용의 99%, 물 사용의 96%를 절약할 수 있다. 그리고 두 국가는 탄소세와 탄소 배출 허용 한도에 대한 정책 수립, 벌채 감축, 산업 효율성 향상, 열병합발전 및 쓰레기 재활용, 화석연료에서 신재생에너지로의 정부보조금 전환 등의 정책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 정책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기술 개발과 그를 통해 새로운 경제 성장을 도모하는 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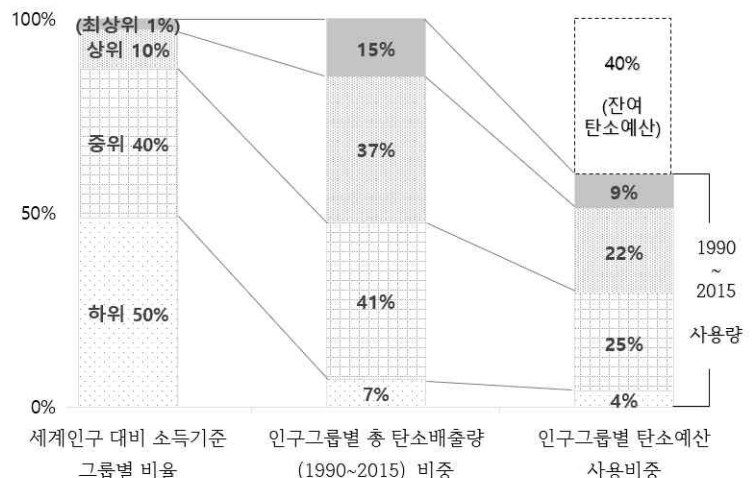
태양열과 풍력 발전을 중심으로 하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 전력 공급 안정과 경제적 효율이라는 측면에서 보다 근본적인 문제제기가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에 대해서도 기술 발전에 의한 극복 방향이 유력하게 제시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테슬라 CEO인 일론 머스크(Elon Musk)는 ‘솔라루프’와 ‘파워월’ 등 태양광 기술의 발전과 배터리 에너지 저장 기술을 결합하는 솔라시티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추진하고 있다.

우리에게는 기후변화에 적응하고 기후위기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과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의 포괄적 개발 전략이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미 경제 성장을 가속하면서도 기후변화에 대응할 만큼의 지혜가 있다. 우리는 세계 기후변화에 관해 더 나은 결정을 지원하고 현상을 지속적으로 파악하는 집단지성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나>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전 세계적 보건 및 경제 위기 속에서도 기후위기 문제는 점점 더 심화되고 있다. 인도와 방글라데시에서 발생한 사이클론 암판부터 미국의 건잡을 수 없는 거센 산불까지 극심한 기후재앙은 멈추지 않고 있다. 이는 전 세계가 합의한 파리 협정의 ‘1.5도(°C) 목표’(지구온난화의 임계점)를 초과하기 직전일 정도로 위험한 상태임을 알리는 강력한 신호가 되고 있다. 옥스팜(Oxfam)과 스톡홀름 환경연구소(SEI)는 최근 연구를 통해 수십 년간 지속된 극심한 탄소불평등이야말로 이러한 기후위기의 주요 원인이라고 밝혔다. 1990년에 비해 2015년의 연간 탄소배출량은 60% 증가했고, 이 기간 동안 누적 배출량은 2배 증가했다. 향후 배출량이 큰 폭으로 줄지 않는 이상, 2030년에는 탄소예산*이 모두 소진될 것이다 (<그림 1> 참조).

이처럼 지난 2~30년 동안 기후위기는 심화되어 왔으나, 우리에게 주어진 한정된 탄소예산은 사람들을 빈곤에서 벗어나게 하는데 사용되기보다는 부유한 사람들의 소비를 늘리는 서비스에 허비되어 왔다. 탄소불평등은 이렇듯 내일 당장 다른 모든 사람들이 탄



<그림 1> 옥스팜과 SEI의 ‘탄소불평등’ 연구결과

소배출량을 0으로 줄인다고 해도, 부유층이 사용하는 탄소배출량만으로도 몇 년 안에 탄소예산을 완전히 고갈시킬 것이다. 그리고 이 불평등으로 가장 고통받는 사람들은 기후위기에 가장 책임이 없는 두 집단이다. 바로 오늘날 이미 기후위기로 고통받고 있는 전 세계의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과 고갈된 탄소예산과 기후 붕괴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지구를 물려받을 우리의 후손들이다.

따라서 각국 정부는 기후위기와 불평등 해소를 정책의 핵심으로 삼아야 한다.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라는 슬로건 아래 불평등한 경제 성장을 지속하여 탄소불평등 해소에 실패한다면, 이는 통제 불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기후위기의 불길 속으로 뛰어드는 것과 마찬가지다. 구체적으로는 대형 SUV 차량, 비즈니스 클래스 항공편, 개인 전용기 등에 고급탄소세를 부과하는 것부터 디지털 및 대중교통 인프라 확대에 이르기까지, 공공 정책들을 통해 탄소배출량을 줄이고 불평등을 해소하며 공중보건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

* 탄소예산: 산업화 이전과 비교하여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특정한 정도로 제한하고자 할 때 배출이 허용될 수 있는 누적 온실가스 배출 총량. 2015년 파리협정과 2018년 ‘1.5도 특별보고서’에서 채택된 1.5도를 기준으로 탄소예산을 추정함.

<다>

케이트 레이워스(Kate Raworth)의 이론은 한 가지 질문에서 출발한다. ‘경제학(economics)’이라는 말은 원래 ‘살림살이를 관리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레이워스는 이 개념을 21세기를 살고 있는 인류와 지구 전체의 살림살이로 확장한다. 즉 ‘지구의 생태적 한계를 고려했을 때, 어느 수준으로 경제가 발전해야 인류 전체가 번영할 수 있을까?’라고 질문하며, 이에 답하기 위해 ‘도넛 경제 모델’을 제시한다. 레이워스는 가운데 구멍이 뚫린 도넛의 비유를 통해 지구라는 도넛 위에서 인류가 생존하기 위한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미래 세대까지 번영하려면 지속 가능성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지속 가능성을 실현하려면 현재 세대는 일정한 한계 내에서 생활해야 한다. 그 한계가 도넛의 바깥쪽, 즉 ‘지구 한계’ 개념에 근거한 ‘생태적 한계’이다. 근대 이후 인간의 활동은 지구의 생명 유지 시스템에 미증유의 압박을 주고 있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홍수, 가뭄, 태풍, 해수면 상승, 그리고 대기오염과 플라스틱 오염, 생명 종의 멸종에 따른 생물 다양성 손실 등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 또한 현재 세계인구는 2050년에는 100억 명에 달하며 세계 경제 규모는 거의 지금의 세 배가 될 것이다. 이에 따라 건설 자재와 소비제품 수요, 그를 지탱하는 에너지 수요도 급증할 것이다.

한편 도넛의 안쪽은 물, 식량, 소득, 교육, 보건, 에너지 등 기본적인 ‘사회적 기초’이며 그것이 불충분한 상태에서 생활한다면 인류는 결코 번영할 수 없다. 사회적 토대가 결여되었다는 것은 자유롭고 좋은 삶을 위한 ‘잠재 능력’을 발휘할 물질적 조건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또한 사람들이 타고난 능력을 온전히 꽃피우지 못한다면 ‘공정’한 사회 역시 일궈낼 수 없다. 개발도상국 사람들은 경제적 불안정성과 불평등 상황에 놓여 있으며, 2008년 금융위기로 수백만 명이 일자리, 집, 저축, 안전을 잃어 국제적 불평등 구조는 심화되고 있다.

게다가 ‘생태적 한계’와 ‘사회적 기초’는 전 지구적 과정으로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대표적인 예로, ‘생태적 한계’에 대응하는 신재생에너지 사업 가운데 전기자동차를 들 수 있다. 그런데 그 필수 원료인 리튬 채굴은 칠레의 생태계를 파괴하고, 담수를 고갈시켜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주민의 일상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대안인 전기차 보급의 확대가 칠레 현지의 주민에게는 생존권 위협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개발도상국인들이 떠안은 이러한 ‘사회적 기초’의 파괴에 대해 그들은 대처할 능력이 부족하다. 이런 것들이 21세기 현재 인류의 장래를 만들어 나갈 흐름이다. 이 상황에서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우리 인류에게는 어떤 사고방식이 필요할까? 레이워스의 ‘도넛 경제 모델’은 이처럼 ‘사회적 기초’와 ‘생태적 한계’가 균형을 이뤄 발전하는 사회 모델만이 그 해법이 될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1-1. <가>와 <나>에서 제시한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의 차이점을 서술하시오. (300±30자)

1-2. <다>와 <그림 1>을 활용하여, <가> 주장의 한계에 대해 설명하시오. (600±60자)

계 열 문 항 2

<가>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타인의 허락을 구하거나 그의 의지에 구애받지 않고, 인간의 이성이라는 자연법의 테두리 안에서 스스로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바에 따라 자신의 신체와 소유물을 처분하고 행동할 수 있는 완전한 자유의 상태에 있다. 이 자연 상태는 또한 그 안에서 모든 권력과 권한이 호혜적이며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갖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평등의 상태이다. 자연 상태의 사람들은 재산 상에서 평등하며, 어떤 종류의 지배-종속 관계도 없이 만인은 그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 그러나 이러한 자연 상태는 무질서와 방종의 상태가 아니다. 거기에는 자연의 법이 있으며, 바로 이 법인 이성은 모든 인류에게, 인간은 평등하고 독립적인 존재자이므로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의 생명·건강·자유 또는 소유물에 해를 끼쳐서는 안된다고 가르친다.

자연 안에서 태어나 자연에서 먹고 마실 것, 입을 것과 쉴 곳을 구하는 신체를 지닌 존재로서 인간에게 자연은 삶의 공동의 터전이다. 자연적 이성은 인간이 일단 태어나면 자신의 보존을 위한 권리, 그러니까 고기를 먹고 음료를 마시고, 여타 자연이 그들의 생존을 위해서 제공하는 것들을 취할 권리를 가진다고 일러 준다. 세계를 인류에게 공유물로 준 신은 사람들에게 또한 그것을 삶에 최대한 이득이 되고 편익이 되도록 이용할 이성도 주었다. 따라서 사람들이 노동을 통하여 자연으로부터 최대의 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것은 자연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것으로 이는 자연적 이성에 부합하는 일이다. 근면한 자들은 토지를 개간하여 자연 그대로였던 때보다 수십 배 수백 배의 식품과 옷감을 얻었으며, 그것으로 인류는 유용한 생활필수품을 충당했다. 그런 만큼 각자의 능력에 기반한 노동을 통하여 자연의 가치를 높인 사람이 그 이득을 더 많이 차지하는 것은 정당한 일이다.

<나>

돌봄이 인간 삶의 기본적인 측면으로 인식되어 모든 정치 이론이 돌봄에 관심을 기울인다면, 민주주의에서 돌봄의 위상은 어떻게 될까? 우리의 삶에서 돌봄이 중심적 위치를 차지한다는 사실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면서 민주주의를 추구하고자 한다면, 민주정치는 모든 시민이 돌봄 문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 책임의 분담을 논의의 중심에 두어야만 한다. 돌봄민주주의는 돌봄이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가 되어야 하며, 돌봄의 실천과 책임 분배가 민주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민주적 돌봄 윤리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동안 많은 학자가 주장해온 바와 같이, 돌봄 윤리가 전제하는 인간관은 기존의 민주정치 담론과는 다른 출발선에서 시작한다. 돌봄 윤리의 관점에서 보면 개인은 관계 안에서의 존재로 인식된다. 개인과 그들의 자유는 여전히 매우 중요할 수 있지만, 그 개인을 마치 모든 것을 혼자 결정하는 로빈슨 크루소처럼 바라보는 시각은 이치에 맞지 않다. 그리고 모든 인간은 취약한 존재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더 취약할 수 있으며, 모든 사람은 삶의 일정 구간에서 신생아나 고령자로서 또는 질병 때문에 극도로 취약한 삶의 구간을 지나게 된다. 사람은 끊임없이 신체 조건이 변화하여 일정한 시기에는 타인의 돌봄과 조력에 의지해야만 한다. 또한 모든 인간은 돌봄의 수혜자이자 제공자이다. 사람은 일생을 통해 돌봄의 필요와 능력이 변화하기는 해도 언제나 돌봄을 주고받는 상호의존적 존재이다. 건장한 성인도 매일 스스로를 돌보거나 타인의 돌봄을 받는다. 한 사회 안에는 돌봄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과 타인을 잘 도울 수 있는 사람이 공존한다. 돌봄의 능력과 필요의 처지가 상반되게 변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시간을 통해 변해가는 과정이다. 이렇듯 인간 모두가 필연적으로 연루되는 사회적 관계망으로 돌봄을 이해한다면, 돌봄의 가치는 궁극적으로 공적 가치임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우리의 삶에 돌봄이 없다면 사회도 존속할 수 없다.

독일에서는 2010년대에 접어든 이래로 돌봄의 사회적 관계망에 기초해 경쟁사회를 연대사회로 변화시켜 나가고자 하는 ‘돌봄 혁명(Care-Revolution)’ 논의가 꾸준히 진행 중이다. 한 사회의 무게중심을 이윤의 극대화가 아니라 인간의 필요와 돌봄으로 옮기고자 하는 이 논의는 인간과 인간이 경쟁자로 맞서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개별적인 삶을 새로운 공동체로 연결하고 구축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다>

집에서는 할머니를 돌보고 집안일을 해요. 그러다 보면 학교에서는 피곤해서 수업 시간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학교가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나요? 여러 의견이 있지만, 주변에서는 학교에 가서 열심히 공부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늘리고 능력을 키우라고 하죠. 그게 사회에 도움이 되는 길이라고요. 이해해요. 하지만 집에 계신 제 할머니는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점점 줄어요. 걷지 못하고, 밥을 먹을 수도 없고, 물론 그전에 밥을 차릴 수 없고요. 그 과정에서 이중 잣대라고 해야 할지, 모순적인 상황에 처하게 돼요. 학교는 경쟁을 통한 능력 향상을 중시하지만, 집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할머니는 보살핌을 필요로 할 뿐, 능력을 키우거나 할 수 있는 일이 늘어날 일은 없으니까요. 그런 사람이 옆에 있으면 마음속에서 갈등이 생겨요. 내가족이 할 수 없는 일이 점점 늘어가는데, ‘가치가 없는 사람일까’라는 생각이 서서히 싹트죠. 그렇지만 누군가는 할머니를 돌보아야 하지 않나요. 돌보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이런 모순에 가장 많이 직면하는 사람이 ‘영 케어러’ 아닐까요. 어느 정도 나이가 있으면 이해하는 면도 있겠지만, 어릴 때는 어느 쪽이 좋은지 고민하죠.... 고등학생 때는 직접 말하지 않았지만 속으로 생각했어요. 주변 사람들은 성적을 올리라고, 능력을 키우라고 하죠. 그렇지만 집에 계신 할머니는 능력이 줄어가도 주변 사람들이나 사회가 질책하지 않아요. 대립하는 두 가치관이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별로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요. 노인은 그런 법이라고 얼버무리죠. 저는 그 모순에 대해 깊이 생각해야 한다고 봐요. 흠....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엄청난 스트레스였어요. 나는 능력을 키워가고 그러면 좋은 평가도 받겠지만, 집에 함께 사는 사람은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도 질책을 받지 않고, 질책할 수도 없어요. 그러면 대체... 보살핌이 필요한 사람...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없어도 그걸 비난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배척하지 않는다는 걸 전제로 한다면, 저 역시 능력을 키우는 데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지금 눈앞에 있는 사람을 긍정하고 존중할수록 ‘그럼 내 학업과 학교생활은 대체 뭘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학교를 중도에 그만두고 나서는 한쪽 가치관이 보이지 않는 곳이 생겼어요. 그래요... 마음이 아주 편했어요. 고민을 하나로 줄일 수 있으니까요. 눈앞의 사람을 소중히 여기면 되니까. 모순을 보지 않아도 된다는 게....

* 영 케어러(young carer): 고령이나 만성질환, 장애, 정신적 문제, 알코올/약물 의존 등이 있는 가족을 직접 돌보는 18세 미만 청소년을 지칭하는 용어.

2-1. <가>와 <나>에 나타난 인간관을 비교하시오. (300±30자)

2-2. <다>에서 ‘영 케어러’가 처한 문제적 상황을 설명하고, <나>의 내용을 바탕으로 그 대응 방향을 서술하시오. (600±60자)